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제막식

오늘 오전 광주공원에서
독립유공자 후손 등 참석
김준태 시인 시집 출간도
전라도의병 활약상 담았다



김준태 시집 '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짓고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이 붓으로 옮겼다. /김준태 시인 제공

함평군 나산면 송암리 태생인 심사 신동욱 선생(1870~1942)은 일제강점기 유학자이자 항일독립운동가였다. 아우인 신동화 선생과 함께 항일독립운동에 일생을 바쳤다.

선생은 1905년 일본제국주의 강압에 의한 을사보호조약에 대해 전국적으로 의병이 일어났을 때 호남지역 의병장들을 아낌없이 지원했다.

두 형제의 물질적 지원을 차단해야만 의병운동이 사그라들 것으로 판단한 일제는 1911년 호남의병을 평정하기 위해 두 사람을 장성 현병대에 구금했다. 혹독한 고문이 3개월간 이어졌고 이로 인해 안장 다리가 될 정도였지만 그는 유언으로 “장 씨개명은 하지 말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마지막까지 항일 투쟁의 뜻을 버리지 않

었다.

14일 오전 11시 광주 남구에 위치한 광주공원에서 ‘심사 신동욱 선생 항일사적비’ 제막식이 열린다.

광주시장을 비롯해 광주지방보훈청장, 독립운동유공자, 각계대표, 광주 시민들이 참석한다.

비문에는 일제 식민지배에 맞서 싸운 선생이 평생을 좌우명으로 삼은 경구 ‘불기심(不欺心)’과 함께 임형택 성균관대

명예교수가 짓고 서예가 학정 이돈홍 선생이 붓으로 옮긴 비문이 새겨졌다.

이날 제막식에서는 김준태 시인이 선생의 일대기를 노래한 ‘심사 신동욱 선생 송가’(문학들 간)도 함께 출간된다.

시집은 일제 강점기를 전후해 전라도를 무대로 일어난 의병 전쟁을 시로 표현했다.

상해 임시정부 독립 자금을 모으고 의병장 심남일·김태원·전해산 등과 교류하면서 군량미, 군수물자를 조달하는 등

선생의 활약을 담았다.

김준태 시인은 “전라도 의병은 조선의 병 숫자의 60%를 차지할 때도 있었고 일본군과의 전투 횟수도 단연 많았다”며 “유학자, 유생들이 쳐들어오는 일본군을 물리치려고 죽창과 화승총을 들었던 행동은 나라 지킴을 위한 운동, 투쟁, 전쟁이었고 그 중심에는 유학자로서 나라 사랑을 행동으로 옮긴 심사 신동욱 선생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연수 기자

배우 정보석이 들려주는 꿈과 희망

ACC 여름방학 특별프로 ‘진로 특’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과 아시아문화원(ACI)이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진로 탐색을 위해 운영하는 프로그램 ‘진로 특(Talk)’이 오는 15일 명사초청 특강에 배우 정보석을 초청한다.



나를 예정이다. 청소년들의 진로에 대해 고민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는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영화 속에 등장하는 직업군을 탐색할 수 있는 ‘ACC TEEN 청소년 영화캠프’를 진행한다.

이날 오후 1시부터 ACC 극장2에서 ACC TEEN 명사 초청 특강을 진행할 배우 정보석은 나주 출신으로 광주에서 산수초, 충장중을 졸업했으며, 현대다문화복지지원 이사장으로 학교 밖청소년,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드라마 ‘막돼먹은 영애씨’, ‘대조영’, ‘지붕뚫고 하이킥’ 등에서 활약했고, 연극 ‘레드’, ‘세인트맨의 죽음’, ‘햄릿’ 등 다수의 방송, 공연, 영화계에서 왕성한 활동 중이다.

영화를 통해 어려운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전달하는 NGO(비정부단체) 활동이 현실과 부딪히며 겪게 되는 예측불허의 상황을 이해하고, 국제구조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현직 의사와 함께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는다.

영화캠프는 청소년 뿐만 아니라 부모가 함께 참여할 수 있다. /이연수 기자

정보석은 이날 청소년들과 함께 야구 선수로 꿈꾸던 청소년기부터 배우로서의 삶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좋은 것, 존중할 만한 것, 가치 있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무더위 날려줄 정통 클래식 공연

정한빈 피아노 리사이틀·노부스 콰르텟 투어콘서트

유·스퀘어 문화관

피아노와 협연사중주 등 무더위를 날려줄 클래식 공연이 광주 관객을 찾는다.

유·스퀘어문화관은 오는 22일 정중을 매료시키는 피아니스트 정한빈의 피아노 리사이틀과 27일 세계적인 협연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투어콘서트를 선보인다.

피아니스트 정한빈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수석 졸업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 수석 입학 및 졸업하며 서울예고를 빛낸 음악인상, 한예종을 빛낸 음악인에게 수여하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잘츠부르크 모차르테움 국립 예술대학교에서 파벨 길릴로프 교수를 사사했으며 석사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귀국 후 현재 피아니스트 김정원 문화에서 수화하며 전문연주자로서의 기량을 더욱 탄탄히 다지고 있다. 그동안 KBS 더콘서

트, YTN 뉴스룸, 김정원의 V살롱콘서트 등 다양한 방송 매체에 출연하며 탁월한 연변과 연주를 대중들에게 선보인 바 있다.



정한빈

그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스 비르투오소 시리즈 중 하나인, 작곡가 류재준이 주목할 만한 연주자를 엄선해 새로운 프로그램과 기획으로 선보이는 자리로 마련된다. 자신이 편곡한 버전의 바흐 ‘사냥 칸타타’를 시작으로, 베토벤 소나타 ‘열정’과 스크리야닌 ‘환상 소나타’, 리스트 ‘소나타 나단조’ 등 고난도 기교의 연주를 들려줄 예정이다.

22일 오후 7시 30분. 티켓 가격 1~2만



노부스 콰르텟

원.

27일에는 설명이 필요없는 최고의 현악사중주단 노부스 콰르텟의 열 번째 정기연주회이자 전국투어가 열린다. 특히, 비올리스트 김규현 합류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연주회로 기대감이 더욱 크다.

올해로 결성 13년차를 맞은 노부스 콰르텟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의 앙상블과 캐리커를 중심으로 풍성한 사운드를

를 들려주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Slavic’을 주제로 체코를 대표하는 드보르작, 스메타나, 야나체크의 작품을 연주한다. 그동안 무대에 자주 올리지 않았던 곡들로 관객들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드보르작의 초기 작품과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자주 연주되지 않는 야나체크의 현악사중주 명곡을 소개한다.

27일 오후 7시 30분. 전석 5만원. /이보람 기자

오늘 박애리와 함께하는 국악한마당

광주국악상설공연서 ‘쑥대머리, 열두달...’ 열창

세계수영동호인들의 축제 ‘2019광주 FINA마스터즈세계수영선수권대회’가 지난 5일부터 열리고 있는 가운데 대회에 참가한 선수단, 방문객을 위해 광주국악상설공연이 매일 풍성한 무대를 펼치고 있다.



한다. 특히, 국악인 박애리씨가 판소리 춘향가의 백미로 꼽히는 ‘쑥대머리’ 대목을 현대적인 관현악 편곡으로 구성한 노래곡 ‘쑥대머리, 열두달이 다 좋아’를 부르며 더욱 흥겨운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14일에는 국악인 박애리씨가 진행자로 나서 구수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관객과 함께한다. 박 씨는 호남 출신 대표 국악인으로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다.

무대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열두달이 다 좋아’ 공연이 오른다. 관현악곡 ‘신밧들’을 시작으로 흥묘하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와 연정을 달래준다는 내용의 창작무용 ‘환영(玄影)의 미소’, 동부 산간 지역의 독특한 음악적 특색인 메나리를 주선율로 흥을 이끌어내는 피리 3중주 ‘춤 위한 메나리’,

무대에는 광주시립국악관현악단의 ‘열두달이 다 좋아’ 공연이 오른다. 관현악곡 ‘신밧들’을 시작으로 흥묘하던 그림 속 여인이 그림 밖으로 나와 연정을 달래준다는 내용의 창작무용 ‘환영(玄影)의 미소’, 동부 산간 지역의 독특한 음악적 특색인 메나리를 주선율로 흥을 이끌어내는 피리 3중주 ‘춤 위한 메나리’, 태평소와 관현악, 사물놀이가 어우러진 사물놀이 협주곡 ‘신모듬 3악장’을 공연

15일은 한국의 빛깔을 몸짓으로 빛어내는 김미숙 뿌리한국무용단이 공연한다. 화려한 부채춤과 함께 섬세한 발 디딤과 정중동의 조화로운 춤사위가 특징인 이매방류 ‘살풀이춤’, 매화꽃잎 아래 남녀의 사랑과 그 사랑을 축복하는 광주를 표현하는 ‘광주의 봄’ 등을 춤으로 풀어낸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국악상설공연은 매일 오후 5시 광주공연마루에서 만나볼 수 있다. /이보람 기자

www.jndn.com 인터넷으로 기사를 다시 볼수 있습니다

지방신문을 살려야 지역이 발전하고, 지역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습니다.

■ 전남매일 광주 시내지국 현황

동구	중앙 223-2378 010-3635-1195	총장 233-4123 010-7755-8824	학운 225-0651 010-3640-2454
서구	광천 374-2126 010-9602-2565	쌍촌 372-6659 010-6636-2775	화정 381-2156 010-4235-0902
상무 372-7625 010-5013-3889	풍암 681-3179 010-6634-5084		
남구	봉선 653-1920 010-9474-0212	진월 653-6900 010-5662-7449	월산 010-8245-1625
남부 651-1833 010-2943-8016	송하 010-8620-1925		

■ 북구

운암 525-3761 010-6886-3761	양산 574-3745 010-2646-3205	오치 261-9461 010-3629-0146	문흥 261-9462 010-7601-4480
일곡 573-3200 010-9273-0105	두암 264-7074 010-2684-6091	중흥 433-1503 010-4601-2080	북부 222-2524 010-2656-4543
광산구	첨단 971-7374 010-3613-2312	신가 952-4864 010-3648-2549	월곡 952-1687 010-3612-1687
우산 951-9954 010-5018-0024	수완 959-1414 010-3101-2526	송정 941-7070 010-3976-0123	혁신 010-4623-9622

■ 전남매일 시·군 지사 현황

광산지사 010-3601-1102	담양지사 010-4154-8277	영암지사 010-4624-8409
목포(갑) 010-3272-2765	곡성지사 010-6764-6100	무안지사 010-3621-8989
목포(을) 010-3635-6777	구례지사 010-5431-4006	함평지사 010-3773-2522
목포(병) 010-9359-1648	고흥지사 010-9151-2828	영광지사 010-8666-2882
여수지사 010-8648-1236	보성지사 010-5259-6441	장성지사 010-3666-1300
순천지사 010-2547-7890	화순지사 010-3666-5888	완도지사 010-5619-7020
나주(갑) 010-6401-9370	장흥지사 010-3613-6114	진도지사 010-3624-4777
나주(을) 010-3713-7458	강진지사 010-6646-1241	신안지사 010-4627-1472
광양지사 010-2630-1628	해남지사 010-8181-2627	

M 전남매일 광주광역시 북구 제봉로 322(중흥동) 대표전화 062) 720-1000 / 구독신청 및 배달문의 062) 720-1098
팩스: 월간곡·관리국·사업국·판매국·광고국 062) 720-1020 / 편집국·기사제보 062-720-1080-82
이메일 편집국: jndn@chol.com 관리국: jsm7139@nate.com 월간곡: jnreviews@hanmail.net
광고국: jnmi1000@hanmail.net 마라톤대회: 0518run@hanmail.net 글짓기대회: peace20090818@hanmail.net